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환경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해 전남 최초 문 열어...실시간 악취 경로 추적하고 선제적 대응 배출사업장 인근 측정기 31대 운영...지도점검 건수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전남 최초로 문을 연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청사 별관 3층에 위치한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 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 인력 6명이 오전과 오후 하루 2교대로 연중무휴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화한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예측뿐만 아니라 발생 전후 경로를 추적하는 등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악취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재 나주 지역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인근에는 악취측정기 31대가 설치·운영 중이다.

1분 단위로 복합악취·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악취 요인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해 전송됨으로써 실시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의 경우 야간 취사간대 상시 순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를 포착해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

현재까지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508건의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중 사업장 13곳을 고발 및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센터 개소 후 시민들도 주요 악취발생사업장 악취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시청 누리집 '악취민원신고'에 접속하면 악취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악취물질 측정값(수치 그래프), 시간대별 악취 등급 등을



지난해 7월4일 나주시청 별관 3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나주시 제공)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악취 신고·접수는 물론 타인이 제기한 지역별 악취 민원 위치 정보, 민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우선, 누리집에서 접수된 악취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 응대 및 현장 조치(자정

이후엔 익일)를 하며 이전과는 다른 민원 응대료 호평을 얻고 있다.

이전에 악취 민원 접수는 일과 시간엔 주무 부서인 환경관리과, 이후엔 당직실에서 맡아왔지만 당면 업무와 당직 직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컸다.

센터 개소 이후엔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즉각적인 조치 가능해지면서 악취 발생 현장 지도점검수의 경우 센터 개소 이전인 2023년 1-5월 151건에서 올해 1-5월엔 5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악취는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센터 운영을 통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민원 응대와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사업주 환경 개선 의식 고취는 물론 악취저감 사업을 병행해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최근 공사를 마친 화순군 남산 북문 앞 회전교차로에서 분수가 물을 내뿜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남산 북문 앞 회전교차로·분수대 설치 공사 마무리

버스 등 대형차량 교통 소통 개선

화순군은 남산 북문 앞에 회전교차로와 분수대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남산 북문 앞 교차로는 비정형화된 4지 교차로였다. 버스 등 대형 차량은 회전반경이 좁은 탓에 우회전 때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췌였다.

화순군은 남산 북문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해 중앙

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가운데에는 조명이 있는 분수대를 설치해 도시 경관을 개선했다.

회전교차로 설치와 주변 아스콘 재포장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분수대 설치에는 3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시설 계획 때부터 주변 상가 주민과 사전 협의를

벌어 인근 노상주차장을 없앴다.

분수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겨울철과 장마철, 기온 때는 운영하지 않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밤에는 분수대가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앞으로 추진할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8월 2~16일 1인 2건까지 응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오는 8월2일부터 16일까지 '24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청자의 분향 강진을 널리 알리고 도자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자 태도(바탕흙)와 유약으로 제작한 창작품이라면 국적과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1인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1차 서류 신청은 8월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고려청자박물관 누리집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박물관 사무실을 찾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실물 심사로 진행한다.

도예, 미술사, 공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작품

을 선정한다.

강진군은 대상(1점) 1000만원, 최우수상(2점) 각 500만원, 우수상(2점) 각 200만원, 특선(10점) 각 50만원, 입선(16명) 각 20만원 등 모두 31점을 선정해 총 3220만원의 상금과 상장 등을 준다.

수상 작가에게는 강진품예(愛) 리모델링 빈집 입주와 청자생산지원센터 입주자가 공모 때 가산점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청자박물관 누리집과 박물관 전시운영팀(061-430-37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내 유일의 청자공모전으로 벌써 24회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그 권위가 널리 알려져 있다"며 "도자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도예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담양읍 강정리 일원 1.5km에 조성된 장미길을 걷는 한 지역민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담양읍 1.5km 장미길 1만송이 활짝

강쟁마을 주민들 3년 전 조성

담양에서도 1만송이 장미의 화려한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담양군은 담양읍 농업기술센터부터 강쟁마을까지 1.5km 구간에 장미길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쟁마을 주민들이 만든 장미길에는 꽃이 만개해 손님을 맞고 있다.

붉은 장미 물결 너머에는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논밭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장미길은 3년 전 조성됐으며, 담양읍은 명품 장미길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정비 보수하고 돌립 등 다양한 꽃을 심을 방침이다.

강성령 담양읍장은 "강쟁마을 주민이 울타리 만들기와 가지치기 제조 작업 등에 동참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줬다"며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장미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1박 기준 최대 5만원 함평군 숙박요금 할인 1인 최대 5박까지 지원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남도 숙박할인 빅(BIG)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광주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 앱에 등록된 함평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할인받는 프로그램이다.

숙박 요금은 1박 기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시 1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1인 1회 최대 5박(연박)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지난해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이벤트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전남도와 함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할인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이번 할인 행사로 관광객이 부담 없이 함평에 머물며 함평의 스포공원, 돌머리해수욕장 등 다양하고 매력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존재 위백규를 기리기 위해 열린 '6회 존재의 날 학술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호남 실학자 '존재 위백규' 학술발표회

존재의 날 기념...생애·업적 기려

호남 대표 실학자로 꼽히는 존재 위백규(1727~1798)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발표회가 장흥에서 열렸다.

장흥군과 존재기념사업회는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6회 존재의 날 학술발표회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장흥군 관산리 방촌 출신인 존재 위백규 선생은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문인이다.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등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남겼다. 열 살 때 전문·지리·병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계 운봉구(1681-1767)를 스승으로 모시면서부터 본격적인 저술 활동에 들어가 학문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게 됐다. 이때 쓰인 저술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103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 세계 지리서라 할 수 있는 '환영지'가 있다. 당시 민정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제도 개혁을 주장한 '정현신보(政鉉新譜)'도 썼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보다 50년 앞선 책이다.

장흥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국내 유일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이후 장흥 출신 역사적 문인들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장흥에서는 '존재기념사업회'와 '기봉백광홍선생기념사업회' 등 문학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존재의 날 학술발표회를 통해 장흥 문학의 단단한 기틀을 재차 확인했다"며 "장흥 문학인들을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선조들의 명맥을 이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웰니스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뇌병변·지체 장애인 대상

장성군이 지역 내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웰니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재활 프로그램은 보건소 종합재활센터 등록장애 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며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교육은 근력과 유연성 향상을 위한 '재활 스트레칭'과 소근육 사용 및 오감 자극을 돕는 원예치

료, 공예교실, 우울감을 예방하는 미술심리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현재 장성군 보건소 종합재활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492명이다.

전문 운동처방사가 개인 맞춤형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이 필요한 주민에게 이번 '웰니스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